美 블루 쓰나미, 한반도에 밀려오는 파도



김 희 석

칼 럼

미국 중간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른바 '블루 쓰나미'로 불리는 민주당의 압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과 예산 운용은 물론 대외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블루 쓰나미의 여파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도 밀려왔다. 코스피지수는 한 주 만에 11.7%나 급락했다. 5거래일 동안 670포인트 넘게 빠졌고, 장중 한때 5000선마저 무너졌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표출되면서 관련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 탓이다.

문제는 그 파장이 반도체 산업이나 금융시장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다. 워싱턴의 권력 지형 변화는 통상과 관세, 첨단기술, 방위비 분담, 대중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반도는 주변국의 질서 변화에 유난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온 역사를 갖고 있다. 16세기 말 일본에서는 오랜 전국시대가 통일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국내의 통일을 발판으로 대륙 진출을 시도했고,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어야 했다.

17세기에는 중국 대륙의 패권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이 진행됐다. 만주족의 세력 확대와 명·청 교체 과정에서 조선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다. 기존의 명 중심 질서에 익숙했던 조선은 새로운 강자의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20세기 중엽의 냉전 역시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가 양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분단됐고, 내부의 갈등은 국제적 대립과 결합해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의 미국 선거를 과거의 왕조 교체나 전쟁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시대도 다르고 국제관계의 작동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하다. 강대국 내부의 권력 변화가 주변국의 운명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변 정세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아니다.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부의 격변이 언제나 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질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지가 많다는 것과 그 선택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주변이 복잡해질수록 우리 내부의 불확실성부터 줄여야 한다. 대외환경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정책 혼선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의 기본 방향이 흔들리고, 국가적 현안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면 외부의 충격은 몇 배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안보와 통상, 첨단산업처럼 국가의 장기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만큼은 지속 가능한 정책과 초당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관된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 오랜 시간 쌓여 형성되는 자산이다. 상대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협력의 기반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차기 정권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에 베팅하기보다 민주당과 공화당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일이 우선이다.

미국의 선거는 미국 국민이 결정한다. 그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의 변화에 휘둘려 온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선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중심'이다./vbkim11@metroseoul.co.kr

'닥공' 시대에 닥친 재건축부담금



기자 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반포현대 조합에 준공 5년 만에 179억원짜리 통지서가 왔다. 서초구가 지난 9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라 통지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다. 조합원 8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꼴이다. 최종 부담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도 새집에 돌아와 계속 사는 조합원에게는 이제 어디서 목돈을 마련할지가 현실적인 문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사업 기간에 늘어난 주택가액에서 공사비 등 개발비용과 같은 기간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빼고 초과이익을 계산한다.

반포현대가 2021년 7월 준공한 뒤에도 주변 집값은 큰 폭으로 움직였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5년 12월 넷째 주까지 그해에만 13.79% 올랐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지역 시세는 이렇게 움직인다.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을 따질 때 사업 기간에 시장을 따라 오른 몫을 따로 빼는 이유다.

재건축 조합들이 문제 삼는 건 그 몫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산정 지표가 사업 기간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올랐을 집값까지 초과이익에 섞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식을 손질해도 납부 시점의 문제는 남는다. 집값이 오른 시점과 그 차익이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은 다르다. 현행법은 부과 종료 시점에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쉰아홉에도, 예순에도 집을 팔지 않으면 오른 집값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재초환을 유지한다면 부담 수준을 대폭 낮추고, 한 채를 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 조합원이 재건축 뒤에도 계속 거주한다면 60세 미만이라도 집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도심에 더 많은 집을 지으라고 한다. 그런데 낡은 집을 헐고 새집에 돌아와 살 사람에게는 공사비를 치른 뒤, 집을 팔기도 전에 부담금으로 또 목돈을 요구한다.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정작 주민이 재건축에 나설 이유부터 줄이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lhj@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1일 (음 10월 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세요. **60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72년생** 아랫사람을 챙겨주세요. **84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소 **49년생** 재물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61년생**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73년생**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됩니다. **85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험합니다. **62년생**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74년생** 쓸데없는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86년생** 음식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토끼 **51년생** 말을 삼가고 음식을 조심하세요. **63년생** 도덕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75년생** 어려운 상황이니 마음을 편히 해야 이롭습니다. **87년생** 난폭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용 **52년생** 귀하가 최고 입니다. **64년생** 너무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76년생**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88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뱀 **53년생** 큰 꿈은 포기함이 좋을 듯 합니다. **65년생**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77년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89년생** 주위의 얕은 말을 듣고 마음을 꺾이지 마세요.

말 **54년생** 멸시하는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66년생** 당신의 소질을 보여주세요. **78년생** 모든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볼 때입니다. **90년생** 숨겨 놓은 기술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양 **55년생** 평탄했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67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9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91년생** 지금 현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 **56년생** 투기 사업에 손대지 말고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68년생** 부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80년생** 북방향이 길합니다. **92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닭 **57년생** 경거망동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69년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81년생** 사소한 다른 일이 생깁니다. **93년생**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개 **58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0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82년생**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94년생** 평소 관심 있는 이성에게 데이트신청을 받게 됩니다.

돼지 **59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1년생** 노력의 대가가 따르는 하루일 것입니다. **83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5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가난도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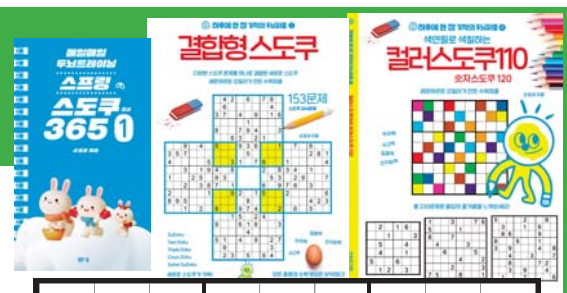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며 부자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부러워만 할 뿐이다. 정작 부자들의 습관이나 행동 양식은 도외시한다. 심하게 말하자면 마치 부자가 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역학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자사주를 타고나는 것도 무시는 못하지만 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습관이 있는데 정작 그들의 행동양식이나 사고는 간과하는 것이다. 재성(財性)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재성을 끌어당길 수도 있음을 무시하고 그냥 운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우선, 부자들은 집 상태가 깔끔하고 청결하다. 특히 그 집의 첫인상인 현관이 환한 느낌을 준다. 신발이나 택배 물건으로 현관이 어지럽지 않으며 통로에 막힘이 없다. 여기저기 틈새에 물건을 쑤셔 넣은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부자들은 대체로 큰 집을 소유하므로 수납공간이 넉넉하여 지저분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는 않다.

언젠가는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쟁여두는 습관은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차단한다고 풍수적으로는 그리 보고 있다. 부자들은 또한 집에 고장이 난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다. 고쳐서 쓸지, 아니면 버릴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다. 이 말을 반대로 가난한 집과 치환해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 특히 부엌이나 식탁에 약봉지나 여러 물건이 정돈되지 않은 채 어지러이 놓여 있어서 눈만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정신이 없어 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진다. 재물의 신도 마찬가지다. 원래 신장님들은 지저분하고 비린내 나는 것을 몹시 저어하는데 사람의 눈에도 어지러운데 하물며 화엄성중님들은 어떠하겠는가? 그 집에 조금도 거하기 싫어지는 것이니 어찌 행운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공간을 청결히 하고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3
	8	9			6		2	
			5		2		9	
9	6	8				3		
		2				6	1	5
	1		7		8			
	4		6			2	5	
3			4					7

4				9	1		6	2
3	9				6		5	
					5			
2	7	1						
8								1
						3	2	4
			9					
	4		5				9	6
1	6		4	8				5

할인도서

7	8	1	5	2	4	6	9	3
9	5	2	1	3	6	7	4	8
4	3	6	8	9	7	5	1	2
5	1	6	9	4	8	2	3	7
8	7	9	3	6	2	4	5	1
3	9	4	7	5	1	8	6	4
6	4	3	2	7	5	9	8	1
2	5	7	4	8	9	1	3	6
1	6	5	3	1	9	4	2	7

5	3	2	7	8	4	9	6	1
6	9	8	2	1	5	3	4	7
7	1	4	3	6	9	5	2	8
4	7	3	8	5	2	6	1	9
1	5	6	4	9	3	7	8	2
2	8	9	6	7	1	4	5	3
9	6	5	1	4	7	8	3	4
8	4	7	9	3	6	1	2	5
3	2	1	5	2	8	9	7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2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